

세계 유산 목록

일본의 전통 및 자연 유산에 대한 세계의 인식



시라카미 산지
아오모리현 시라카미 산지는 일본에서 마지막 남은 너도밤나무 원생림으로 간주된다.

일본에는 긴 열도를 따라서 다채롭고 아름다운 자연과 현존하는 옛 건축물들이 있다. 2017년 7월 현재, 일본에는 21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다.

세계 유산 협약

공식적으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불리는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11월 6일에 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자연보존과 문화유산 보호의 개념을

결합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협약의 목적은 전 인류의 대체할 수 없는 문화유산과 장소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인 특징, 자연적인 장소 및 지리적, 지형학적 형성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고고학적 장소, 기념비 및 건물들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협약은 가입국의 의무를 정의하며 세계유산기금에는 훈련 지원, 기술 협력 및 비상 지원을 포함하는 업무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시한다.

2017년 7월 현재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193개국이며 총 1,073건(문화유산 814건, 자연 유산 203건, 복합유산 35건)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낙하점은 현재 원폭돔으로 알려진 히로시마현 산업추진관 건물의 남동 160 m였다.
(사진제공 : AFLO)



세계유산이 등재돼 있다. 2012년 11월에는 세계유산협약 채택 40주년 기념 회의가 교토에서 개최되었다.

문화 지역

호류지 지역에 있는 불교 비석 (지정연도: 1993)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 사원은 7세기 초반에 불교를 일본에 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쇼토쿠왕자(574-622)의 명령으로 건립되었다. 670년 절의 일부가 화재로 파괴되었지만 곧 대규모로 경내를 재건하였고 이후에 서부 경내(Western Precinct)로 지정되었다. 현존하는 탑과 중앙 강당(‘곤도’), 중앙 문(‘주문’) 및 외곽 회랑의 일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들이며 그 시기는 7세기 후반부터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부 경내는 8세기에 추가되었다. 총 48개의 건축물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후지산(성지로서 또, 예술적인 착상의 원점으로서 2013년)

시즈오카현과 야마나시현에 걸쳐 있는 일본 최고봉의 산이며, 높이 3,776미터. 산 정상이 눈으로 덮힌 후지산의 모습은 일본의 상징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활화산이지만, 에도시대(18세기) 이후, 지금까지 분화는 없었다. 구성 유산은 '후지산 신앙' 및 '예술적 경관' 등의 요소를 반영하는 25건. 후지산은 오랫동안, 순례의 대상이며, 또 예술가나 시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12세기에는 신도(神道)의 요소가 가미되어 불교 수행의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일찍이 11세기부터 후지산은 일본 예술계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19세기에 그려진 '미호노 마쓰바라'라는 우키요에(浮世繪: 에도시대에 성행한 유녀나 연극을 다룬 풍속화)로 인하여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으로서 세계에 알려 주었다. 또, 일본을 비롯하여 서양 예술에도 다대한 영향을 주었다.

류큐 왕국의 구스쿠 지역 및 관련 건물 (2000)

류큐 왕국은 오키나와와 많은 다른 섬들을 포함하여 15세기로부터 400년 동안 류큐 열도를 통치했다. ‘구스쿠’라는 말은 류큐 방언으로 “성” 혹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높은 곳”을 의미한다. 9개의 건축물에는 이 섬에서 발전한 독특한 문화의 중요한 구조물인 성과 종교 유적지가 포함된다. 나하시에 위치한 슈리성은 류큐 왕국의 주요성으로 사용되었다.

히메지조(1993)

효고현의 히메지시에 위치한 히메지조는 성의 높고 하얀 모습 때문에 ‘시라사기’(흰 백로)성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 성은 14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건설되었지만 현존하는 83개의 전각 중 대부분은 1601년에서 1609년 사이에 지어졌다. 현존하는 일본의 성 중 일본 성 구조의 가장 좋은 표본인 히메지조는 아름다우면서도 강력한 요새이다. 침입자들은 외부 성벽을 통과해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통로로 된 미로와 싸워야만 4개의 연결된 내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중앙 경내는 45미터(148피트) 높이의 언덕 위에 있으며 근처에 위치한 서쪽 경내와 함께 외부의 3중 방어막으로 둘러 쌓여있다. 중앙 내성은 외부에서 보면 5층이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7층으로 되어있다.



봄의 초록에 빛나는 눈이 덮인 후지산

시라카와 마을

시라카와 마을 지구는 이엉으로 지붕을 인 '갓쇼즈쿠리' 농가가 많다.
(사진제공 : Getty Images)



히라이즈미(2011)

도호쿠 지방의 중앙에 위치한 히라이즈미는 11세기 후반에 시작하여 100년 이상 도호쿠 지방을 지배한 오슈 후지와라 가문의 사찰과 정원, 그 밖의 역사적 유적지의 고향이다. 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신성한 산도 포함한다. 일본 특유의 건축기술과 원예기술로 지어진 사찰과 정원들은 당시에 일본에서 번영한 불교사상, 즉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나타내는 정토신앙의 이상을 상징한다. 특히, 금불상이 있는 주손지(中尊寺)와 정토를 나타내는 연못이 있는 모쓰지(毛越寺)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두 사찰은 지난 시절의 영광을 떠올리게 한다.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겐바쿠돔)(1996)

겐바쿠돔 또는 원폭돔이라고도 알려진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폭발로 파괴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보존되었다. 1915년에 이 건물은 원래 히로시마현 산업진흥회관으로 지어졌다. 세계유산 고문단의 평가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파괴적인 힘의 사용으로 반세기 이상 지속된 세계평화실현에 대한 적나라하고 강력한 파괴의 상징"이다.

고대 교토 역사기념물(교토, 우지 및 오츠시)(1994)

일본의 고대 수도였던 교토는 794년부터 1868년까지 황실의 집이었다. 1,000년 이상 동안 일본 문화의 중심으로서 교토는 절, 신도 신사 및 황궁을 포함하여 엄청나게 풍부한 전통적인 건축물의 집이기도 하다. 더 많은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17개의 건축물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 건축물 중에는 동쪽에서 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넓은 뒷마루로 유명한 기요미즈데라의 절, 15세기 아시카가 막부의 저택으로 사용되었던 킨카쿠지(금각사)와 긴카쿠지(은각사)의 절, 선불교의 절이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선 양식의 바위 정원의 집인 료안지, 교토를 방문했을 때 도쿠가와 막부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니조성, 교토 북쪽에 있는 우지시에 있으며 헤이안 시대(794-1185)의 가장 좋은 표본 중의 하나인 묘도인의 절 그리고 후두(불사조 강당)가 포함된다.

나라 역사기념물(1998)

710년부터 784년까지 나라는 일본의 수도였다. 중국의 당나라로부터 문화적인(문학, 미술, 건축 등)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 이 도시는 번창하는 일본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나라는 일본 불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이며 이 유산은 세계유산의 조건에 잘 부합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거대 목조 구조물 중 하나인 도다이지의 거대 부처 강당이 아주 유명한데, 이곳에는 나라의 거대 부처로 알려진 15미터(대좌 제외)의 청동 불상이 있다. 불상의 중요한 표본들은 고후쿠지, 야쿠시지 및 도초다이지의 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가스가신사는 신도 신사 건축(가스가-즈쿠리)의 독특한 양식으로 유명하다.



나라의 대 불상

높이가 15 m(대좌 제외)인 청동제 루사나불상은, 752년 개안 공양한 이래로 여러 차례 큰 손상을 입고 복구되었다.

시리가와-고와 고카야마의 역사마을(1995)

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 지역에 있는 오기마치, 아이노쿠라 및 스가누마로 구성된 세 개의 산지마을에는 '갓쇼-즈쿠리' 양식으로 지은 많은 농가가 있다. 이 집들의 가파른 초가지붕은 겨울에 떨어진 마을로부터 고립시키는 엄청난 눈을 이겨내야 했다. 또한 이 집들의 위층은 누에를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츠쿠시마 신도 신사 (1996)

전통에 따르면 이츠쿠시마 신사는 593년에 설립되었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성스러운 곳이라고 여겨진 히로시마만의 섬에 위치해 있다. 이 신사는 만으로부터 160미터나 떨어진 곳에 서있는 거대한 '도리이'문과 만조 때는 물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주홍색 신사 건물들로 유명하다.



이쓰쿠시마 신사

바닷속 기둥이 해상 교통의 수호신인 신사를 바치고 있다. 신사의 대부분이 히로시마 만의 바다 위에 지어져 있어, 섬과 하나가 된 신사의 경관은, 일본 삼경의 하나로 손꼽힌다. (사진제공 : Getty Images)

이와미 긴잔 은광과 문화 경관 (2007)

시마네 현의 오다시에 위치한 이와미 긴잔 은광은 16세기 초기부터 20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 사용되었다. 진보된 채광 기술이 도입되었던 16세기와 17세기에 이 광산은 엄청난 양의 은을 생산하였고, 이것은 국제무역에 은을 사용하였던 일본과 아시아의 경제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유적(2017)

오키노시마는 '성스러운 섬' 숭배의 문화적 전통이 이어져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키노시마는 후쿠오카 현 무나카타 시의 해안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오키쓰미야와 나카쓰미야의 신사가 있다. 섬 전체가 무나카타타이샤(무나카타 신사의 총본산)에 포함되며 성스러운 믿음의 대상이다. 4세기부터 9세기까지 한반도 및 중국 대륙과의 성공적 교역을 기원하는 종교적 제례 의식이 열렸으며 이 섬의 제례변화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흔적은 사실상 거의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

기이 산지의 성지와 성지 순례 루트 (2004)

요시노와 오미네, 구무노 산잔 및 고야산의 성지는 나라와 교토의 고대 수도의 남쪽에 있는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는 기이산맥에 위치해 있다. 요시노와 오미네에는 산지 수행자의 종파인 슈겐도의 많은 산지 사찰들이 있으며 이 종파는 신도의 요소들을 도입한 불교이다. 구마노 산잔은 구마노 지역에 있는 세 개의 신도 신사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고야산은 이름이 같은 고야산에 위치한 불교의 수도원 단지이다.

닛코의 신사와 사원 (1999)

닛코는 17세기에 설립되었고 도쿠가와 막부의 설립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묘가 있는 신도 신사인 도슈구의 지역으로 아주 유명하다. 요메이몬으로 알려져 있는 중앙문과 신사 건물은 아름다운 조각과 밝은 색으로 색칠한 그림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또한, 닛코에는 후타라산 신사, 불교사찰인 린노지 및 도쇼구가 세워질 당시 심었던 거대한 삼나무 숲이 있다.



요시노야마(吉野山)

기이 산중의 요시노야마는 벚꽃과 사적으로 유명하다.

무나카타타이샤의 헤쓰미야

헤쓰미야는 무나카타타이샤를 구성하는 신사 세 곳 중 하나이다. 대청과 예불당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중요문화재이다. (사진 제공: 교도 뉴스)



토미오카 제사 공장 및 관련 지역(2014)

토미오카 제사 공장은 일본 최초의 기계화된 제사 공장이며 군마현 남부에 건립되었다. 이 정부 운영 공장은 서구 기술을 사용하여 140 m 길이인 기계에 300개의 받침그릇이 있는 실크 방직기를 갖추었으며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직 공장 중 하나였다. 이 기술 혁신으로 실크 원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전 세계 사람들이 비단을 살 수 있게 되어 생활과 문화를 더 낮게 바꿀 수 있었다.



토미오카 제사 공장 동쪽 누에고치 창고

토미오카 제사 공장의 주 건물은 약 150년 전 건립된 이후 거의 변경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사진 제공: 토미오카시)

일본 메이지 산업 혁명 지역: 주철과 강철, 조선 및 탄광(2015)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주철과 강철, 조선 및 탄광 산업의 기초가 확립되었으며, 이들은 나중에 일본의 기간 산업이 되었다. 서구 산업을 모방하고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한 일본의 산업화는 전국민이 노력한 결과로



나라야마 반사식 용광로

반사식 용광로는 금속을 녹이고 제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나라야마 반사식 용광로는 에도 시대 말에 건립된 것으로 남아 있는 세계의 반사식 용광로 중 하나이다.

(사진 제공: "일본 메이지 산업 혁명 지역" 세계유산위원회)

불과 50년 만에 달성되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 혁명을 상징하는 23개 지역이 있으며, 이곳은 서구에서 비서구 국가로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유산은 규슈 지방 및 도호쿠와 간토 지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모더니즘 운동에 탁월하게 기여한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 (2016)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는 스위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성공했으며 20세기 초 이후의 건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도쿄 우에노의 국립서양미술관은 그가 설계한 일본의 유일한 건축물이다. 1959년에 완공된 이 건축 작품은 필로티, 슬로프, 자연광을 사용한 조명 계획 등 그의 방식을 잘 보여 준다.



국립서양미술관

1959년 3월 완공된 국립서양미술관은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일본의 유일한 건축물이다.

(사진 제공: 국립서양미술관)

자연 지역

오가사와라 제도(2011)

도쿄에서 남남동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태평양에 위치한 30개의 섬들이다. 이 섬들은 치치지마(父島)와 하하지마(母島)에서 떨어져 있는 무인도인데, 아름다운 경치와 풍부한 동식물상을 보이고 있다. 생태계는 거대한 대륙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이 섬들 특유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해 온 많은 생물 형태가 존재한다. 오가사와라 과일박쥐(학명 *Pteropus pselaphon*)를 비롯하여 이

시레토코

홋카이도 시레토코의 대자연에는 많은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사진제공 : AFLO)



지역에만 서식하는 동식물 600종 이상 있다. 이 섬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57종이 있어 매우 귀중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라카미 산지(1993)

일본의 주요 섬인 혼슈의 북쪽에 위치한 시라카미 산지는 마지막으로 남은 시에볼드의 너도밤나무 숲으로 덮여있다. (1페이지 사진 참조) 일본 흑곰과 일본 시로우산양이 많은 조류와 함께 이 숲에 살고 있다.

시레토코 (2005)

시레토코 반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인 홋카이도의 북동쪽 끝에 있다. 뾰족한 침엽수림과 넓은 화산지대로 덮여있는 이 지역은 일본에서 가장 개발이 되지 않았으며 가장 떨어진 지역이다. 육상과 바다 생태계의 상호작용의 훌륭한 예인 시레토코는 많은 수의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식물과 동물들의 중요한 서식지이다.

야쿠시마 (1993)

야쿠시마섬의 5분의 1이 세계유산 지정지역이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이는 이 섬에는 아열대성 기후의 해변지역과 규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다. 이 숲에는 나이가 수천 년이나 되는 일본 삼나무가 많다. 그러한 나무 중에 하나인 조몬 스기는 7,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